

▣ 작품 해설

이 노래는 가락국 건국 신화 속에 들어 있는 삽입 가요로서, 수로왕을 맞이하기 위해 구지봉의 흙을 파서 모으고 춤추는 과정에 불렀다는 점에서, 고대 시가의 제의적, 집단적, 주술적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 노래의 핵심인 ‘거북’이 신령스런 존재를 상징한다고 볼 때, 거북의 머리는 생명을, 머리를 내놓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뜻하는 것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알로부터 수로왕이 탄생하는 것과 일치한다.

거북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위협하는 행위에서 고대인의 소박한 상징과 주술적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 노래는 한역(漢譯)되어 전하지만, 당시에는 가락국의 건국 신화의 일부로 존재했다가 민간에 구비 전승된 것으로 보인다. 신라 성덕왕 때 수로(水路) 부인이 바다의 용에게 잡혀갔을 때 백성들이 집단으로 불렀다는 「해가」에서 이러한 전승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 <참고 1> 배경 설화

후한 세조 광무제(後漢世祖光武帝) 건무(建武) 18년 임인(壬寅) 3월 계육일(禊浴日-액을 없애기 위해 물가에서 목욕하며 노는 날)에 마을의 북쪽 구지(龜旨)에서 무엇을 부르는 수상한 소리가 났다. 마을 사람 이삼백 인이 그 곳에 모이니, 사람의 소리가 나는데 그 모양은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리기를, “여기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구간(九干)들이 말하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또 소리하기를, “이 곳이 어디냐?” 대답하되, “구지입니다.” 또 말하되, “하느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이 곳에 와서 나라를 새롭게 하여 임금이 되라 하였으니, 너희들은 구지의 봉우리 흙을 파면서, ‘거북아, 거북아, / 머리를 내어라. / 아니 내면은 / 구워서 먹으리.’ 하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면 대왕을 맞이하는 일이 될 것이니, 기뻐하고 용약(勇躍)하라.” 하였다. 구간들이 그 말을 따라 다같이 빌면서 가무(歌舞)를 하였다.

10여 일 후에 하늘에서 내려온 황금 알 여섯이 사람으로 변하여 그 중의 한 사람이 처음으로 나타났다고 하여 휘(諱)를 수로(首露)라 하고, 나라를 대가락(大駕洛) 또는 가야국(伽倻國)이라고 불렀으니, 곧 육가야(六伽倻)의 하나이고, 나머지 다섯 사람도 다섯 가야(伽倻)의 주인이 되었다고 한다.

▣ <참고 2> ‘구지가(龜旨歌)’의 해석

향가의 4구체와 비슷한 형식을 가진 이 노래는 수로왕의 강탄(降誕) 의식에서 불리어진 주술적인 집단 무요(舞謠)로서, ① 잡귀(雜鬼)를 쫓는 주문으로 보는 견해. ② 영신제(迎神祭)의 절차 중에서 가장 중추(中樞)가 되는 희생 무용(犧牲舞踊)에서 가창되는 노래라는 견해. ③ 원시인들의 강렬한 성욕(性慾)을 표현한 노래로 보는 견해. ④ 거북점을 칠 때 부른 노래라는 견해 등이 있다.

그러나, 700여 년 후 성덕왕 때 불려졌다는, 내용 및 주제가 같은 ‘해가(海歌)’와 연결시켜 볼 때 원시 주술적 집단 무요(集團舞謠)로 보는 것이 유력하다.

▣ <참고 3> ‘해가(海歌)’

구지가 계통의 노래로 신라 성덕왕 때 수로부인이 해룡(海龍)에게 잡혀가자 남편인 순정공이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서 불렀다고 한다. 구지가가 오랜 세월 민간에 구비 전승되어 왔음을 확인해 준 노래이다.

龜乎龜乎出首露(구호구호출수로)	거북아, 거북아, 수로를 내 놓아라.
掠人婦女罪何極(약인부녀죄하극)	남의 아내 앓았으니 그 죄가 얼마나 큰가?
汝若悖逆不出獻(여약패역불출헌)	네 만약 거스르고 내놓지 않는다면
入網捕掠燔之喫(입망포략번지끼)	그물로 너를 잡아서 구워 먹으리라.

(삼국유사 권2)

▣ <참고 4> ‘구지가(龜旨歌)’와 ‘해가(海歌)’의 비교

□ 공통점

- ① 여러 사람이 함께 불렀다.
- ② 4구체의 한역시(漢譯詩)로 전해지고 있다.
- ③ 작품의 기본적 구성 방법이 비슷하다.
- ④ 이 노래를 부른 결과 소원이 이루어졌다.

■ <참고 5> 명령, 위협의 표현 방식과 주술성

거북이에게 머리를 내놓으라고 명령하고,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는 위협을 하고 있다. 소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기원하는 대상인 거북에게 명령을 하고 위협의 어조를 사용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고대인들이 주술성을 드러내는 방식 중 하나이다. 주술에서는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해서 일방적인 순종만을 보이지 않고 때로 회유나 투쟁을 하기도 하며, 혹은 강한 위협을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고대인들은 실제 행동이 아닌 집단적 염원을 담은 언어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고, 머리를 내놓으라는 주술 명령을 통해 마침내 수로왕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주술의 효과를 본 것이다.

■ <참고 6> ‘거북’과 ‘머리’의 상징적 의미

- 거북 : 신령스러운 존재이자, 인간의 집단적 의지에 복종하는 존재
- 머리
- ① 생명 : 새로운 생명. 탄생(임금의 탄생)
- ② 우두머리 : ‘머리’는 최고와 으뜸을 상징하므로 지도자, 임금을 뜻함, 수로왕
- ③ 남근 : 거북의 머리는 외형이 남근과 유사함. 생명력의 근원

■ <참고 7> ‘구지가’의 성격

근거
염원을 하며 노래를 불렀고, 그 염원이 이루어졌다.
3월 계육일에 흙을 파면서 불렀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불렀다.
임금을 맞이하는 행사에서 불렀다.

→
→
→

성격
주술가
노동요
집단요
영신군가

내용 확인 문제

1. 구지가에서 신령스러운 존재는 ()이다.
2. 구지를 부른 근본 목적은 ()이다.
3. 구지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와 ()이다.
4. 화자가 위협을 하는 이유는 ()를 위해서이다.
5. ‘머리’는 실존 인물인 ()를 상징한다.
6. 이 작품은 ()국의 시조 설화이다.
7. 이 노래의 주제는 ()이다.
8. 구지를 본뜬 노래 중에는 ()가 있다.
9. 구지에는 노래와 함께 전승되는 배경 ()가 있다.
10. 구지는 ()구체의 한역시이다.
11. 염원을 하고 염원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구지는 ()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12. 흠을 파면서 불렀다는 점에서 구지는 ()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13.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불렀다는 점에서 구지는 ()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14. 임금을 맞이하는 행사에서 불렀다는 점에서 구지를 ()라고도 부른다.

15. 핵심 정리

- 구성 ()
- 갈래 ()
- 성격 ()
- 표현 ()
- 주제 ()

서술형 문제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1. ㉠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술하십시오.
2. <보기>는 이 시의 배경 설화이다. 배경 설화를 통해 알 수 있는 위 글의 성격을 조건에 따라 서술하십시오.

<보기>

가락국에 아직 임금이 없어 9명의 추장이 백성들을 다스리던 마을 구지에서 무엇을 부르는 수상한 소리가 났다. 마을 사람 이삼백 명이 그곳에 모이니, “너희들은 구지의 봉우리 [A]흙을 파면서,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만약에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라는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면 대왕을 맞이하는 일이 될 것이니, 기뻐하라.”하였다. 구간 등이 그 말을 따라 [B]다 같이 춤추고 노래하였더니 10여일 후에 하늘에서 6개의 황금 알이 내려와 6명의 귀공자로 변하였는데, 그중 제일 큰 알에서 나온 사람이 수로왕이었다.

- <조건>
1. [A]와 [B]에서 성격을 하나씩 추론할 것
 2. 한 문장으로 서술할 것

3. 이 시의 4행에서는 위협이 사용되었다.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에게 위협을 사용한 이유를 서술하십시오.

4. <보기>를 참고하여 이 시의 1행의 의미를 서술하십시오.

<보기>

소원을 빌 때에는 소원을 들어 줄 대상신(對象神)을 먼저 불러 모신 뒤에 소원을 말하는 것이 순서이다.

5. 이 시의 시상 전개 방식을 설명하십시오.
6. 노래의 기능 측면에서 이 시와 <보기>의 유사점을 서술하십시오.

<보기>

이 집터가 어떤 터냐 좌우로다가 살펴보자.
(후렴) 에헤 에헤헤야 어거리 넘차 달고
이 집을 지은 지 삼 년 만에 부귀공명은 물론이고
(후렴) 에헤 에헤헤야 어거리 넘차 달고

7. <구지가>와 <해가>는 ‘거북의 등장’ 및 형식적인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노래의 내용과 배경 설화를 볼 때, 창작 당시 이 두 노래를 지어 부른 사람들은 ① ‘거북을 대하는 태도’나 ② ‘거북을 위협하는 궁극적 목적’이 서로 달랐을 것이다. 그 차이점을 ①과 ②로 나누고, 주어는 작품 이름으로 하여 60자 내외로 서술하십시오.

<보기>

거북아, 거북아, 수로를 내놓아라.
남의 아내 앓았으니 그 죄가 얼마나 큰가?
네 만약 거스르고 내놓지 않는다면
그물로 너를 잡아서 구워 먹으리라.

8. 위 작품의 주제를 ‘군주의 강림을 기원함’이라고 볼 때 이러한 주제의식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시행을 찾아 쓰고, 이 시행이 주제를 잘 드러내는 이유도 함께 서술하시오.

9. <보기>와 이 노래의 공통점을 서술하시오.

<보기>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집 다오 두껍아, 두껍아 물 길어 오너라 두껍아, 두껍아 너희 집 주어 줄게

10. 다음 작품은 이 노래와 같은 계열의 <해가>이다. 이 노래와 <구지가>를 비교해서 읽어 보고, 두 작품에 나타난 주술 내용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보기>
龜乎龜乎出首露 거북아, 거북아, 수로를 내놓아라 掠人婦女罪何極 남의 아내 앗은 죄 그 얼마나 크냐. 汝若悖逆不出獻 네 만약 어기어 내놓지 않는다면 入網捕掠燔之喫 그물로 잡아서 구워 먹으리

11. <구지가>와 <해가> 사이의 관계를 문학의 긍정적 계승의 측면에서 서술하시오.

12. 이 시에 반영된 원시 사상 2가지를 서술하시오.

13. 이 노래와 같은 집단 무요가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이유를 15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14. 이 노래와 <보기>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보기>
오동추야 달은 밝고 강강술래 / 우리 임 생각 절로 난 다 강강술래

15. 이 노래의 문학사적 의의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16. 이 노래가 창작 주체 면에서 <공무도하가>나 <황조가>와 뚜렷이 구별되는 점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시오.

<보기>
임아 그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그에 물을 건너시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신 입을 어찌 할꼬. <p style="text-align: right;">- 공무도하가</p>
훨훨 나는 저 꾀꼬리 암수 정답게 노니는데, 외로울사 이내 몸은 뉘와 함께 돌아갈꼬. <p style="text-align: right;">- 황조가</p>

17. 처용이 <보기>의 노래를 부르자 처용의 아내를 범한 역신(疫神)이 물러갔다고 한다. 이 노래와 <보기>의 성격상 공통점을 서술하시오.

<보기>

식불 불기 드래
밤드리 노니다가
드러사 자리보곤
가르리 네히어라.
둘흔 내해엇고
둘흔 뉘해언고
분딤 내해다마룬
아사놀 엇디 흐릿고.

-처용, <처용가(處容歌)>

18. 이 시를 <보기>와 같이 바꾼다고 할 때, 원래 작품과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보기>

거북이시여! 거북이시여!
우두머리를 우리들에게 보내 주소서.
만약 보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19. 배경 설화를 근거로 할 때, '거북'이 상징하는 바를 서술하시오.

20. 이 노래를 <보기>와 비교했을 때, 차이점을 위주로 <보기>의 특징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보기>

두껍아, 두껍아. / 헛 집 줄게 새 집 다오.
두껍아, 두껍아. / 물 길어 오너라.
너희 집 지어 줄게.

정답 및 해설

내용 확인 문제

1. <답> 거북
2. <답> 왕을 얻기 위함
3. <답> 요구, 위협
4. <답> 소원 성취
5. <답> 수로왕
6. <답> 가락
7. <답> 수로왕 강림 기원
8. <답> 해가
9. <답> 설화
10. <답> 4
11. <답> 주술요
12. <답> 노동요
13. <답> 집단요
14. <답> 영신군가
15. 핵심 정리
 - 구성 <답> 1,2행(요구). 3,4행(위협)
 - 갈래 <답> 4구체 한역 시가,
 - 성격 <답> 주술요, 서사적, 노동요, 집단 무가
 - 표현 <답> 주술적, 직설적 표현, 명령 어법
 - 주제 <답> 수로왕 강림 기원

서술형 문제

1. <답> 거북은 신령스러운 존재이자 인간의 집단적 요구에 복종하는 존재이다.
2. <답> [A]에서 흠을 파는 모습을 통해 노동요적인 성격을 알 수 있고, [B]에서 다같이 춤을 추고 노래한 것을 통해 집단요적인 성격을 알 수 있다.
3. <답> 고대인들이 주술성을 드러내는 방식 중 하나이다. 주술에서는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해서 일방적인 순종만을 보이지 않고 때로 회유나 투쟁을 하기도 하며, 혹은 강한 위협을 하기도 한다.
4. <답> 거북은 신령스러운 존재이다. 거북에게 소원을 빌기 전에 대상신으로서의 거북을 먼저 호명하여 소원을 들어주기를 빌기 위하여 1행에서 거북을 부르고 있다.
5. <답> 대상을 부르고 대상에게 명령을 하고 상황을 가정하고 대상을 위협하는 구조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6. <답> 두 작품 모두 노동을 할 때 흥취를 돋우고 노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노동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7. <답> ① 거북을 대하는 태도에서 <구지가>는 경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비해, <해가>는 부정적 행위의 주체,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② 거북을 위협하는 궁극적 목적에서 <구지가>는 왕의 강림을, <해가>는 수로부인의 귀환을 염원하고 있다.
8. <답> '머리를 내어라.'이다. 머리는 우두머리와 왕을 상징한다. 이 부분은 구간 등이 신에게 자신들의 머리가 될 왕을 내려 달라고 기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제 의식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 있다.
9. <답> 주술적인 성격이 나타난다.
10. <답> <구지가>의 주술 내용이 임금을 맞이하는 공적인 것이라면, <해가>는 사적인 인물인 수로 부인의 구출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1. <답> 건국 서사시의 일부를 이루고 나라곳에서 부른 <구지가>와 같은 노래가, 오랫동안 구전되어 신라 때에 이르러 민간에 전승되었다. 이는 문학이 이전의 문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조를 하는 긍정적 계승의 예시로 볼 수 있다.

12. <답> 무속 신앙과 토테미즘이 나타난다. 주술요라는 점에서 무속 신앙이 드러나고, 거북을 신처럼 주술을 들어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토테미즘이 드러난다.

13. <답> 소원 성취를 위한 주술성이 있기 때문이다.

14. <답> 위 시와 <보기> 모두 집단 가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15. <답> 현전 최고의 집단적 무요(舞謠), 주술성을 지닌 가장 오래된 노동요(勞動謠)라는 의미를 가진다.

16. <답> 창작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다.

17. <답> 주술성을 가지고 있다.

18. <답> 신성한 대상에 대한 공경의 태도를 띤다.

19. <답> 이 노래는 '영신군가'라고도 불린다. 이렇게 불리는 것은 이 노래와 함께 전하는 배경 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알로부터 수로왕이 탄생한다는 점에서 결국 '거북'은 '신군'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0. <답> 위협적이지 않고 타협적이다.